

영국과 호주의 고용지원정책

송창용* · 성양경**

*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적자원패널통계센터 소장

**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적자원패널통계센터 연구원

영국과 호주의 고용지원정책

《요 약》

- 경제 불황과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과 고용지원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의 당면 과제임.
- 세계 각국은 불황으로 인해 급증한 실업에 대처하고자 다양한 고용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음.
 - 각국 정부는 실업자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급, 교육훈련기회 제공, 단기 공공근로 제공 등의 자구책을 마련하고 추진 중에 있음.
-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일자리의 감소를 막는데 급급하기 보다는 위험을 감수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함.
 - 따라서 정부는 단기적인 일자리 제공을 통한 실업자 지원과 더불어 창업 지원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이끌 수 있는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임.
- 이에 본고에서는 영국의 청년층 창업지원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호주의 고용지원 서비스를 살펴보고,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지원 정책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.

I. 서론

- 경제 불황과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과 고용지원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의 당면 과제임.
- 세계 각국은 불황으로 인해 급증한 실업에 대처하고자 다양한 고용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음.
 - 각국 정부는 실업자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급, 교육훈련기회 제공, 단기 공공근로 제공 등의 자구책을 마련하고 추진 중에 있음.
-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일자리의 감소를 막는데 급급하기 보다는 위험을 감수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함.
 - 따라서 정부는 단기적인 일자리 제공을 통한 실업자 지원과 더불어 창업 지원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이끌 수 있는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임.
- 이에 본고에서는 영국의 청년층 창업지원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호주의 고용지원 서비스를 살펴보고,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지원 정책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.

II. 영국의 창업지원 프로그램

▣ 청년층 창업지원 프로그램 Flying Start

- 대학 및 대학원 졸업 예정자와 최근 졸업자들을 대상으로 교육훈련, 멘토링, 재정지원 등을 통해 청년층의 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
 - 졸업 예정자나 최근 5년 이내 졸업자가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면 창업에 필요한 재정 및 각종 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.
 - 아울러 성공한 선배 기업가들과의 네트워킹, 장기 멘토링, 창업 관련 훈련 프로그램, 워크샵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짐.
 - 또한 대학의 창업 동아리도 이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으며, 마찬가지로 교육훈련과 재정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음.

- Flying Start의 주요 지원 프로그램
 -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창업 관련 정보제공, 개별 창업 및 동아리에 대한 재정지원, 창업 관련 교육훈련 및 워크샵, 글로벌 기업가 프로그램 참여 기회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있음.

<표 1> Flying Start의 주요 지원 프로그램

프로그램	내용
온라인	인터넷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멘토, 지원팀, 재정지원 관련 정보,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는 시장, 만 명 이상의 선배 기업가들과의 네트워킹 기회, 회계, 세금, 법률, 영업, 마케팅, PR, 사업 지원 및 기획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
재정지원	- 창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재정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, 대상자로 선정되면 상품과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음.
워크샵	- 6시간 동안 진행되는 워크샵에 두 차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됨. - 이 워크샵을 통해 창업한 선배와 정보를 교류하고 조언과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짐.

<표 계속>

프로그램	내용
교육훈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향후 12개월 이내에 창업할 예정이거나 최근 창업을 한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3일간의 집중 멘토링 및 훈련을 제공하고, 12개월 동안의 산업별 멘토링 및 전문가 자문을 제공 - 이 프로그램은 12개월 이내에 사업을 성장시키고 제품 및 서비스를 거래하는 것을 목표로, 창업을 시작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업 모델과 기초적인 사업 지식을 이해하고 지역이 네트워크 및 멘토를 통한 사업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게 해 줌. - 프로그램은 네트워킹, 지식 워크샵(재무, 마케팅, 재정지원, 지적재산권 보호, 기획, 네트워킹 스킬 개발 등), 능력개발 워크샵(고객관리, 네트워킹, 발표, 설득, 시간 관리 등) 과 더불어 경험이 풍부한 멘토로부터 전문적인 조언과 받는 것으로 구성됨. - 산업분야는 창작(디자인, 도자기, 주얼리, 패션, 기술), 예술(공연예술, 영화, 방송, 연극), 여성 기업, 공학 분야 등이 있음.
동아리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학의 창업 및 기업 동아리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학교에서 창업을 진행하는데 지원을 받을 수 있음. - 창업 동아리 회원에게는 웹사이트가 제공되고 이를 이용하여 회원을 모집, 네트워킹을 할 수 있으며, 그 밖에 블로그, 포럼, 이벤트, 서류 지원 등을 이용해 동아리의 회원 및 지원자들에게 진행 상황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음. - 이밖에도 개인 회원과 동일하게 Flying Start 시스템을 통해 투자 및 대출 정보를 이용할 수 있고 멘토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.
글로벌 기업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과학기술, 공학, 수학 분야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가에게는 국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- 이 프로그램을 통해 6개월은 미국에서, 나머지 6개월은 영국에서 총 1년 동안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.

🌐 Flying Start 웹사이트: <http://www.flyingstartonline.com/>

▣ Young Enterprise의 사업 및 창업 관련 교육 프로그램, Learning by Doing

- 학생들에게 사업과 기업과 정신에 대해 배우고 경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
 - ※ Young Enterprise는 초·중·고교생 및 대학생들에게 사업과 창업에 관한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영국 전역 12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음.
 - Young Enterprise의 창업 교육 지원 프로그램은 교육을 통해 청년들의 기업가 정신 및 도전정신을 고취시키고 사업 및 창업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.
 - 초·중·고교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며, 각 학교의 교과과정을 통해 진행되거나 세미나 형태로 제공됨.

- 현업에서 일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원봉사자들이 학생들에게 기업가 정신에 대해 교육하고, 학생들의 연령대에 따라 기업가들을 만나고 기초적인 사업 스킬을 배우는 것에서부터 실제로 사업체를 디자인하고 운영하는 단계까지 단계별로 교육 프로그램이 구성됨.
- Young Enterprise는 현재 영국 3,000여개 기업의 참여와 지원으로 매년350,000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사업 및 창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있음.

● 프로그램 종류

- 연령대별로 다양한 형태의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, 현장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하여 기업과 창업에 관한 다양한 형태의 수업과 세미나를 제공함.

<표 2> Young Enterprise의 직업교육훈련 지원 프로그램

프로그램	내용
Primary Programme (4~11세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현업에 종사하는 자원 봉사자들이 우리, 우리 가족, 우리 마을, 우리 지역, 우리 나라, 우리 세계 등 6개의 테마에 대해 수업을 진행함. - 자원봉사자들은 구조화된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일자리 경험을 공유하고 다양한 실습 활동을 통해 교육 내용이 어떻게 일자리와 관련돼있는지를 교육함.
Your School Your Business (11~12세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세미나 형태로 진행됨. - 학교를 운영하는데 얼마나 다양한 사람, 노력, 일과 기술이 필요한지에 대한 교육을 통해 학교는 학습의 장소일 뿐 아니라 사업의 장소가 될 수도 있음을 가르치고 학교에서 학생들의 현재와 미래의 역할을 생각해볼 수 있게 함. - 수업은 자원봉사자들은 토론과 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됨.
Personal Economics (12~15세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학생들에게 자산관리, 신용과 부채, 저축, 투자, 예산 수립 등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르침. - 학생들에게 경제활동에서 소비자, 고용주 및 근로자, 납세자, 투자자, 채무자로서의 역할을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. - 자원봉사자들이 토론과 실습을 이끌고 1주일에 1시간씩 6주 또는 1일 세미나 형식으로 제공됨.
Enterprise in Action (12~15세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인터넷 상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업을 운영하게 하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통해 기본적인 사업 개념을 가르침. - 자원봉사자들은 학생들이 사업 모델을 생각해내고 디자인, 계획, 실행, 추진과정에서 가져야 할 태도와 능력을 키워줌. - 7개 세션을 7주 동안 진행하거나 2일 간의 세미나 형태로 제공됨.

<표 계속>

프로그램	내용
Project Business (12~15세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업이 어떻게 투자자, 고객, 근로자, 지역사회와 상호작용하는지 살펴봄. - 협력사의 지원을 받아 기업체에 방문기회도 제공됨. - 교사와 자원봉사자들이 일주일에 1시간씩 6주 수업을 통해 경제와 사업에 대해 가르침.
Quick Start (12~15세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50명이 한 팀을 구성하여 10일 동안 직접 사업을 계획, 운영하고 사업과 창업에 필요함 기술과 경험을 습득함. - 현장 전문가가 멘토링을 제공하고, 학생들은 서로 인터뷰를 통해 역할을 정하고 사업을 위해 공유된 자원을 어떻게 모으고 제품과 서비스를 조사-디자인-생산-판매를 수행하게 됨. - 최종적으로 시장에서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하고 결과와 성과를 정리해서 발표함. - 10일 프로그램으로 오전에는 현장 전문가들이 각 사업 과정의 재무, 인사, 마케팅 등 단계에 대한 세미나를 제공하고 활동을 이끔.
QuickStart Music (12~15세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음악 산업에 종사하는 멘토의 도움을 받아 이론과 실제 경험을 통해 10주 동안 음악 사업을 운영하며 배움. - 젊은 음악가들의 재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짐.
Company Programme (15~19세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학생들이 직접 회사를 설립하고 1년 동안 운영해보는 프로그램 - 이사회 선출, 자본금 유치, 선택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여 1년 뒤 실적에 대해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 - 이 과정을 마친 후 본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기술 및 능력을 인증해주는 공식 수료증을 제공함.
Entrepreneurship Masterclass (15~19세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본 프로그램은 창업을 졸업 후 직업으로 고려해보고 창업에 필요한 기업 기술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세미나 시리즈 형태로 제공됨. - 기업가들은 발표, 실습, 토론을 주도하며 학생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공유함. - 학생들은 창업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사안들 대해 경험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얻을 수 있음.
Industry Masterclass (15~19세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특정 사업 분야(창작, 미디어, 공학, 숙박, 건축, 식음)에 대한 조망을 제공해주는 세미나 시리즈 - 현장 전문가들은 발표, 실습, 토론을 이끌어 자신들의 경험을 나누고 학생들에게 격려와 조언을 제공 - 학생들은 해당 산업 분야에서 어떤 기술과 지식이 필요하고 현재 자신의 상태와 창업 기회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음.
Graduate Programme (18~24세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고등교육 단계의 학생들에게 사업을 직접 창업하고 운영하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- 개인의 성공, 평생학습, 고용가능성 향상 등을 위해 필요한 태도와 기술 개발을 돕고, 창업을 미래의 직업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관점을 넓혀줌.

- Young Enterprise의 창업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조사 결과
 -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학생의 경우 그렇지 않은 비교 그룹보다 수입이 1/3 많았으며, 창업가능성이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.
 - 본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들이 보다 열정이 높고, 일에서 성공하며,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,
 - 참여한 학생들은 학교 수업 보다 Young Enterprise 프로그램이 자신의 직업능력개발에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함.

Ⅲ. 호주의 고용지원 서비스

▣ 호주의 복지·고용서비스의 통합전달체계 센터링크(Centrelink)⁶⁾

- 호주의 고용서비스는 ‘센터링크(Centrelink)’를 통해 제공
 - 1997년에 설립된 이곳은 기본적인 고용서비스 뿐만 아니라 각종 공공서비스까지 통합 제공
 - 모든 고용 및 복지 관련서비스들이 아직 완전히 원스톱(One Stop)으로 제공되지는 않지만 소위 한 지붕 서비스(One Stop Shop Service)로 제공되고 있음.
 - 복지 및 고용 관련서비스가 한 곳에서 제공되는 것은 ‘문제가 생겼을 때 그곳에 가면 해결 된다’는 인식을 심어준다는 측면에서 중요함.
 - ※ 우리나라의 경우, 사회안전망의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함.
 - ※ 비정규직의 고용보험가입률은 2009년 현재 약 40%임.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제도는 아직 작동되지 않고 있음.
 - ※ 뿐만 아니라, 국가의 복지와 고용서비스의 혜택을 받는 계층은 그 전달체계가 부처별로 나누어져 있어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음. 또한, 고용서비스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도 정립되어 있지 않음.

6) 유경준(2009). 「나라경제」, 12월호에서 요약·발췌함.

〈 센터링크의 출발에 대한 초대 책임자 수 바돈(Sue Vardon)의 견해 〉

“서비스전달에 대한 접근을 소비자의 관점에서 생각하기위해 관료체계를 거꾸로 뒤집을 필요가 있다. 이것은 정부가 고안한 지불방법, 서비스, 프로그램이 아닌 일반시민들의 경험을 기반으로 한 접근이어야 한다.”

→ 서비스를 공급하는 공무원들의 편의가 아닌 서비스를 받는 수요자 입장의 서비스전달체계 고안

- 호주에서는 일단 센터링크에서 복지 및 고용서비스의 혜택이 필요한 사람을 식별한 후, 필요한 서비스를 주로 민간에 위탁해 제공

- 고용관련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해당서비스를 국가가 바로 제공 하느냐, 민간에 위탁해 제공하느냐에 따라 고용서비스 지원체계가 공공중심 또는 민간중심으로 나누어짐.

- 외국고용서비스제도의 일반적인 발전단계는 다음과 같이 분류

- ① 고용서비스의 발생
- ② 공공기관 독점시대
- ③ 민간기관 규제완화와 공공부분의 발전
- ④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과 협조 또는 민간서비스 중심시대

※ 우리나라는 현재 3단계와 4단계의 경계에 들어서있음.

- 호주는 고용서비스 발전단계인 4단계의 마지막 또는 새로운 5단계라 볼 수 있는 민간중심의 고용서비스를 제공
 - 실업급여, 실업자프로파일링, 개인별취업지원계획, 고용정보제공 등 기본적인 고용서비스는 센터링크에서 담당하고,
 - 훈련이나 취업알선 등 보다 집중적인 고용지원서비스의 제공은 입찰을 통해 선정된 민간 업체에 성과에 따른 보상을 전제로 위탁하고 있음.
- 호주의 민간중심 고용서비스 성과
 - 시행 1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는 개별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취업은 더 많은 보상을 받는 구조로 짜여있음.

- 호주의 민간중심 고용서비스는 성과중심으로 이루어져 고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지원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으나 이는 초기에 발생한 일부 현상임.

- 최근 호주의 정부 변화
 - 호주 노동당 정부는 정책슬로건으로 평생학습과 숙련을 중시하는 정책방향 제시
 - ※ 호주는 1996년부터 11년 간 집권했던 자유-국민연합정부의 하워드 총리가 물러나고 2008년부터 노동당의 리드 총리가 집권

 - 또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사회통합,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노동공급과 숙련부족에 대비해 교육과 훈련에 중점을 둔 정책 추진

 - 이를 위해 과거 ‘고용노사관계부’를 ‘교육고용노사관계부’로 변경함.

- 이런 변화의 배경에는 지난 10년 간 센터링크를 통해 성공적으로 수행된 복지 및 고용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성 제고가 바탕에 깔려있음.
 - 호주 정부는 현재의 ‘한 지붕 서비스’를 진정한 의미의 원스톱 서비스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.

 - 국민에게 유용한 서비스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부작용을 최소화 시키면서 어떻게 전달체제를 바꿀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임.

IV. 시사점

1. 실효성 있는 진로교육을 통한 미래 고용 지원

-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 못지않게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일자리 창출 노력이 필요하고,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아동 및 청년층을 대상으로 진로교육 강화는 핵심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임.
 - 현재 우리나라의 진로교육은 매우 취약한 실정임.
 - ※ 15세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국제적으로 비교한 PISA 조사 내용을 분석한 최근 연구에 의하면 OECD 각국과 비교할 때, 우리나라의 진로교육은 국제적으로 최하위 권에 속함(e-HRD Review 12-11호).
- 취업을 앞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뿐만 아니라 전 교육과정에서의 진로교육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함.
 - 앞서 살펴본 영국의 사업과 창업에 관한 교육프로그램 사례에서 학생의 연령대별로 4세부터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을 구성한 것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음.
 - 우리나라도 저학년 아동부터 직업관과 진로에 대한 개념을 정립해주는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함.
- 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진로 교육은 의무적이고 피상적인 교육이 아닌 실제 진로 결정 및 향후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실 있는 교육이 제공되어야 함.
 - 모든 학생들이 노동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갖추고 졸업할 수 있고, 학교에서 노동 시장으로 이행하는 과정을 갑작스럽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실용적인 교육 및 직업경험 기회가 뒷받침 되어야 함.

2. 창업 활성화를 통한 미래 일자리 창출

- 기존 산업에서 일자리 창출의 한계를 파악하고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해야 함.
 -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창업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실업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음.
 - 이를 위해 교육훈련, 재정지원 등 각종 지원이 필요함.
 - ※ 우리나라의 경우 청년층에서 창업에 도전하기 보다는 기존 업계로의 취업에만 몰두하고 있는 실정임. 이는 창업에 필요한 교육 및 재정 부족이 주된 원인임.
 - 진로교육에 있어서도 제한된 직업에 관한 정보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 스스로 창업을 통해 도전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및 경험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함.

3. 정부가 주도하되 기업 및 지역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

- 취업 및 창업지원에 민간 기업과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유인책을 제공해야 함.
 -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에 현업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면 보다 내실 있는 교육과 조언을 제공할 수 있고, 현장실습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교육훈련을 제공할 수 있음.
 - 기업과 지역의 자발적인 참여가 결과적으로 기업의 인재 확보 및 지역 경제 발전에도 이익이 됨을 강조하고, 실질적인 재정지원 및 세제 혜택 제공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임.
 - ※ 영국은 정부와 150여개 기업이 참여하여 청년층 취업 지원 캠페인 “Backing Young Britain”을 실시하고 있으며, 이를 통해 85,000개의 일자리와 고용 기회를 창출함.
 - ※ 호주는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청년층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을 돕고 아울러 지역의 노동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인 “Grow your Own initiative”를 통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역에 있는 기업에서 직업교육 및 실습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을 지원함.

4. 복지 및 고용서비스의 전달체계 통합

- 한 번에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복지 및 고용서비스의 전달체계가 통합되어야 함.
 - 관련부처가 다르고 일선 전달체계가 다를지라도 최소한 상호연계는 이루어져야 함.
 - 이런 전달체계의 통합은 그동안 수차례 강조됐지만 부처 간의 이견으로 조정되지 못함.

- 전달체계를 담당하는 부서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심도 깊게 고려해야 함.

- 나아가 기초 고용서비스의 제공은 공공부문에서 담당하고, 나머지는 민간에 위탁해 경쟁을 통한 고용서비스의 혁신을 추구해야 할 것임.